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개최일시	2026. 7. 10.(금) 09:30 ~ 12:35	회의장소	진선미관 진관홀
참 석 자 (11명)	강보아(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서하연(경영대학 공동대표), 신동희(교무처장), 오민서(학부 부총학생회장), 이승연(관리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이준엽(기획처장), 이창온(총무처장), 장현수(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정예진(학부 총학생회장), 최정아(학생처장)		
불 참 자 (2명)	백주현(간호대학 공동대표), 윤정원(한영회계법인)		
회의 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및 운영 개선 관련 논의		
내 용	■ 개회 - 위원장이 참석위원 전원이 '위원회 준수사항 및 보안 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 녹음을 개시함을 알리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총무처장, 학생위원을 대표하여 학부 부총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을 진행할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의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요구안 안건 상정에 관련하여 등심위에 이화인 요구안 정식 안건 상정 요구안을 발제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생 요구안이 등록금 산정과 대학 재정 운영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므로 등심위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며, 과거		

간서명	오민서	이준엽	이창온

	에도 학생 요구안이 안건으로 다뤄진 선례가 있다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 요구안은 정기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부서가 이미 검토하고 있으므로 등심위의 법정 심의 대상과 별개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차년도 예산 편성 등 적절한 시기에 학생 요구안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이후 이화인 요구안 논의 후속협의회 정기 개최 요구안을 발제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학생 요구안과 등록금 인상분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후속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정기협의체와 후속협의회의 기능 및 참여자가 중복되었음에도 각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언급하며, 소통 채널 다양화보다 창구 일원화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후속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개최 시기와 방식은 해당 연도의 여건 및 기존 협의체 운영 상황에 맞춰야 하므로 정례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자료 제공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사전 송부 및 구체화 요구안과 회의록 구체화 및 투명성 강화 요구안을 발제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회의 당일 또는 직전에 자료를 받아서는 실질적인 검토가 어려우므로 모든 회의 자료를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시점에 사전 송부하고, 산출 근거와 세부 설명을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의 5일 전 송부하고 있으며, 학생위원이 제출하는 자료도 전체 위원에게 함께 송부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간을 고려해 6일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자료 조기 송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회차 증가와 자료 작성 업무를 고려하면 모든 자료를 더 이른 시점에 제공하기 어려울 수
--	---

간서명	오민서	이준엽	이창온

	있다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현행 회의록은 논쟁의 배경과 주요 맥락이 지나치게 축약되어 있으므로 합의되지 않은 쟁점과 논의 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회의록 수정 요청의 내용과 사유를 전체 위원에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현재 회의록도 다른 대학보다 상세하며 법정 기한 안에 초안 작성, 위원 확인 및 날인을 마쳐야 하므로 모든 발언을 속기록 수준으로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본인 발언뿐 아니라 회의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누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해당 발언자의 확인을 거쳐 반영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책정 결과 학우 대상 공지 강화 요구안을 발제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책정 결과뿐 아니라 인상률, 산출 근거 및 결정 과정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고지서 발행 전에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종료 후부터 고지서 발행 3일 전까지 등록금 변동 내용을 공지하고, 가능하다면 고지서에도 인상 여부를 표시할 것을 제안하다. - 학생처장이 등록금 책정 내용을 공지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며 학생소통게시판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공지 방식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회의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한 회의 보장 요구안을 발제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고지 및 학교 행정 일정에 맞추어 회의를 촉박하게 진행하면 학생위원의 검토와 의견 수렴이 제한되므로, 회의 사이에 최소 5일 이상의 간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다수 위원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1월 안에 법정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일률적인 간격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차기 회의부터 가능한
--	--

간서명	오민서	이준엽	이창온
-----	-----	-----	-----

	범위에서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보다 원활한 일정 조율을 위해 위원 수 축소를 제안하다. -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위원 축소에 동의하며 위원 구성을 제안해 주실 것을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과 회의 최소 시간 사전 협의 요구안을 발제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안건의 중요도와 분량에 따라 충분한 심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회의 개최 전에 학생위원과 종료 시각 및 최소 회의 시간을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회의 시간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전체 위원의 일정을 확인해 연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학생처장이 장시간 연속 회의는 집중도와 건강에 부담이 되므로 기본 회의 시간을 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간 휴식과 추가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 직권 졸속 의결 방지 요구안을 발제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대립되는 안건의 논의를 위원장 판단만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 절차 진입 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안건에 학생위원 등의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총무처장이 첫째, 학교 측 위원과 학생 측 위원이 동수인 상황에서가중 정족수는 학교가 학생 측 의견을 무조건 반영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마비시켜 법률에 정해진 등심위의 심의기한과 절차를 지킬 수 없게 하고, 둘째, 등심위 관련법령에서 등심위 운영은 과반수 원칙을 따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방안을 내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다.
--	--

간서명	오민서	이준엽	이창온

	- 위원장이 예정된 회의 시간을 넘어 충분히 논의했으나 추가적인 제안 없이 찬반 입장이 평행선을 이룬 경우에는 위원장으로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 조퇴 시 사전 고지 의무화 요구안을 발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위원의 조퇴로 중요 안건의 논의가 중단되거나 의결이 앞당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종료 시각 이전에 퇴실할 위원을 사전에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회의 예정 시간을 넘어서 발생한 문제로 조퇴로 보기는 어렵지만 예정 시간을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한다면 동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며, 사전에 확인된 조퇴 예정은 회의 중 성원 점검 시 안내할 수 있으나, 우발적인 사정을 모두 내규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및 자격 제한 요구안을 발제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직책이 위원장을 맡으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장 피선출 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특정 직책의 피선거권을 사전에 제한하면 위원들의 선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을 간사로 두어 역할을 명확화하고 교수평의회 의장으로 위원 변경 요구안을 발제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은 자료 작성과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간사 역할에 집중하고, 의결권을 가진 위원은 교수평의회 의장 등 다른 구성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총무처장이 현행 위원 구성은 관련 법령과 구성 단위별 균형을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타학교의 경우에도 기획처장과 예산팀장이 등심위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예산팀장의 전문성과 실무 역할이 등심위 운영에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외부 전문가와 학생위원 간 사전 면담 보장 요
--	--

간서명	오민서	이준엽	이창온

	구안을 발제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외부전문가위원이 학교 측 자료뿐 아니라 학생 사회의 입장과 등록금 부담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위원과의 공식 면담 또는 서면 질의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외부전문가위원에게 면담을 규정으로 강제화하기보다는, 학생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준다면 회의 전에 송부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외부위원 임기 설정 및 명문화 요구안을 발제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외부전문가위원의 임기와 연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기 종료 시 학교와 학생이 재위촉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외부전문가위원 선임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측과 학생 측의 협의를 거쳤음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교내 구성원 참관 허용 요구안을 발제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의 투명성과 학생사회의 의견 반영을 위해 교내 구성원의 참관을 허용하고, 참관인에게도 필요한 범위에서 발언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다수 참관인의 참여는 회의 집중도와 발언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고 민감한 재정 정보의 보안 문제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참관 대신 회의록을 충실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논의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왔다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차기 총학생회장단 참관 및 발언권 정례화 요구안을 발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차기 총학생회가 1월 등록금 책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2월 등심위부터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참관과 발언을 정례화할 것을 요
--	--

간서명	오민서	이준엽	이창온

	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현 총학생회와 차기 총학생회가 동시에 발언할 경우 학생 대표성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 발언이 필요하다면 차기 총학생회가 공식 선출된 후 학생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대학원 학생회는 2025년 12월 위원을 교체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단순참관이라면 회의록을 참고하여 학생위원들이 차기 당선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안 의결 순서를 등록금 책정 이후 조정 요구안을 발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수준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면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 계획을 충분히 심의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안 의결을 등록금 책정 이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예산안을 등심위와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설명하며, 등심위 등록금 책정 결과를 등심위 당초 예산안에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고, 인상분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순서 변경이 어렵다면 등록금 책정 회의에서 기존 예산안의 부족 항목과 투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산안 심의 때 등록금 책정과의 연관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재정 관련 설명회 개최 요구안을 발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뿐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교 재정의 사용 구조를 설명하는 정기적인 재정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재정 설명회의 필요성은 다양한 창구로 이미 작용을 하고 있음에 따라 창구가 많아지면 오히려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며 현재의 창구를 활용하는 안을 제안하다. 학생처에서 작년과 금년 모두 예년에 비해 많은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기에 등심위 추가 개최 요구안을 발제하다.
--	---

간서명	오민서	이준엽	이창온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뒤 심의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0~11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등심위를 추가로 개최하여 학생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회기별 총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발언하며, 10월 등심위를 개최하여 학생 요구안 우선순위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를 희망한다면 현 학생회 집행부는 직전 학생회 집행부가 제출한 학생 요구안을 올해 우선순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총학생회의 정리된 의견을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추가 등심위 소집 기준 명확화 및 미진행 시 사유 고지 의무 내규 명시 요구안을 발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개선, 등록금 인상분 활용 및 추경예산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등심위를 소집하는 기준을 내규에 명시하고,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법규상 정해진 안건과 절차에 따라 예정된 회의 이외의 추가 회의는 위원들의 합의와 출석 가능성에 따라 소집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개최 의무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에도 학교 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차년도 학부 및 유학생 등록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다. - 위원장이 차년도 등록금 수준은 차기 등심위가 재정 여건과 법정 인상 한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매년 반복되는 운영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등록금 책정 회의와 별도로 구조 등심위를 정례 개최할 것을 요구하다. - 위원장이 구조 개선 논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차기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특정 시기와 방식의 개최를 미리 의무화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에서 논의할 안건과 개선안을 학생 위원과 교직원위원이 사전에 교환하고, 예상 논의 시간과 순서를 함께 조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다.
--	--

간서명	오민서	이준엽	이창온

	- 위원장이 회의 자료 사전 송부 규정은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안전에 대한 학생위원 측 자료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면 전체 위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 개최 자체에는 의미가 있으며, 이날 제안된 사항을 일회성 논의로 끝내지 말고 차기 위원회와 학생사회가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다. ■ 폐회 - 위원장이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6년 7월 10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준엽		위 원	이승연	
	위 원	강보아		위 원	이주연	
	위 원	백주현	불참	위 원	이창온	
	위 원	서하연		위 원	장현수	
	위 원	신동희		위 원	정예진	
	위 원	오민서		위 원	최정아	
	위 원	윤정원	불참			
작 성 자	스크랜튼대학 공동대표 정 수 연					